

직원평의원 입후보자 소견문

기호 3번 정광국

선·후배 선생님들께,

어느덧 2022년도의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제법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여전히 업무에 수고와 노고가 크실 줄 압니다. 우리 대학이 처한 미래에 대한 막연함, 암울함이 우리를 더욱 힘들고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는 대학과 기업을 구분 짓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경쟁의 구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대학이 과연 어떠한 대안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할지에 대한 고심으로 보내실 줄 압니다. 그러함에도 뾰족한 대안은 아직 부재함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길고 긴 고민이 끝없이 보이는 희뿌연 안갯속을 헤매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00년도 밀레니엄의 꿈을 안고 우리 대학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과 역량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대학 정책과 결정을 최종 심의할 대학평의원회 직원평의원 자리에 나서게 되어 무척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선생님의 격려로 감히 나설 수 있었고 저의 부족한 역량을 성실과 열정으로 극복하겠다는 심정으로 선생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선생님들과 함께하여야 그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도전에는 반드시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과 함께한다면 감히 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대학의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과 결정은 늘 험난하고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공감대는 구성원의 일원인 직원사회와 대학 간에도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이라는 소통의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그러한 창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만년 후발주자가 어느 순간 선두를 꿰차곤 합니다. 그러한 역전을 가능케 하는 것은 늘 혁신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우리 대학이 그러한 혁신이 없고서야 이 난관을 뛰어넘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의 혁신을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환절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9일(수)
생활체육교육센터 행정실 정광국 올림